

“미래 지향적 신앙”

요 9:1~12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있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에 불과했다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과정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해 집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 개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알려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가던 중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 9:2)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은 인과응보 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기 보다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들의 뿌리를 과거에서 찾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목적이 그리고 왜 소경이 되었나의 대답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신다. 이는 그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은**

**1. 아무리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롬 8:28)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이 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렌켈러, 송명희 같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비관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고 부하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불가사의한 능력입니다.

**2.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할수 없던 일을 이제는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보다 큰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한 못생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만들어 썼다. 그런데 수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날 가면을 벗었더니 자기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변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실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특징 있는 교회, 특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제자로 훈련시켜 많은 그리스도의 정예군이 키워져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3.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소경이나 병자를 고칠때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순종하기 거북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뜨였습니다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을때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을 수십년 동안 믿는다고 해도 “듣고 난 다음에 차차 생각해보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일도 못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듣는것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 믿음으로 순종할때 그 사람을 통해 이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극대화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넷째, 미래 지향적인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죽이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미 정해진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라면 야곱과 야베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그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스러운자란 뜻입니다. 야베스는 이름대로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면 사생아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보면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로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야베스 하나님께 매일 간구했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IQ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상상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때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것은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곧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 나눔의 시간

---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지향적 사고에서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성도의 삶을 네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미래 지향적인 성도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 지향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에도 항상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